



# 時計塔

SIGETOP



2016년 1월 2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43권 1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발행인: 徐 倫 錫  
편집인: 李 元 澤

편집위원: 金 明 源 徐 亮  
羅 斗 燮 徐 仁 錫 李 善 姬

자문위원: 盧 鎔 冕 金 炳 哲  
李 熙 景 許 善 行

##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서 윤 석(68) 북미주동창회장



2016년 희망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북미주동창회의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의 하나인 장학생 선발에서 금년에도 국내외로 14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을 위하여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6일 총동창회의 Annual Ball을 워싱턴 지역에서 서울대학교 지역동문들과 함께 성대히 치렀습니다. 장학생 수여식에 이어 입낙중, 조세진 동문 등 여섯 분께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이번 모임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퇴 후의 회원들의 이동사항을 고려 한다면 가장 합리적이고 유익한 결정이었습니다. 앞으로 각 도시마다 그렇게 되리라고 예측합니다.

본인은 흥정용 서울의대 총동창회장님의 초청으로 지난 12월 15일에 열렸던 "함춘 송년의 밤"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국내외 동창회의 운영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북미주동창회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는 점을 설명 드리고 왔습니다. 서울에서는 그 모임에 참석 인원이 약 450명 있었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몇몇 분들(특히 강신호, 이길여, 박용현 명예회장님들)께서 오랫동안 많은 동창회의 일을 희생적으로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미주동문들을 대신하여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함춘의학상, 동아의학상, 미주함춘공로상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소의 변동이 필요한 것을 확인 했으며 북미주동창회를 위하여 도움이 될 저의 의견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말씀 드렸습니다.

본관 왼쪽의 동창회관을 방문하여 김윤기 사무국장님을 만났으며 20여년 전 회관 건립시 현금을 하신 여러 미주동문들의 이름을 현관 벽에 새겨진 리스트에서 확인 했습니다. 또한 앞쪽만 남기고 잘린 역사가 담긴 기초건물의 후면에 위치한 낙후된 학생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내부를 자세히 둘러본 후 미주 동문들도 앞으로 그 신축 모금을 위하여 꼭 협조를 해야 겠다고 느꼈습니다.

현재 학생 7명당 한 분의 시신이 배당이 되는 해

### 2015 함춘 송년의 밤 인사

저는 워싱턴에서 온 북미주 총동창회 서윤석입니다. 68년 졸업이고 22회입니다.

흥정용 회장님, 이렇게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국내외로 동창회를 생각하여주시는 강신호 선배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권이혁 선생님, 이길여 선생님, 박용현 명예회장님, 강대희 학장님, 오병희 병원장님,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 선배 동문님들께 미주 동문들을 대신하여 인사를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북미주 동창회는 1972년 약리학을 전공하시던 이광수 초대 회장으로부터 설립되어 지난 43년동안 모교와 끊임 없는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나라 의학발전에 보탬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 오시는 젊은 동문들의 숫자는 지난 20년간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현재 미주에는 1200명의 우리 동문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해마다 학술대회를 겸한 동창회 모임이 33년 동안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채로운 연사와 토크으로 6월 2일부터 4일까지 수도 워싱턴 근교 The Westin Tysons Corner Hotel, 버지니아에서 동창회 겸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예년처럼 내년에도 서울에서도 많이들 참석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홍보는 북미주 동창회보인 시계탑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주 동창회는 국내외로 14명의 장학생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대 재학생이 7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서울에 계신 함춘학술상 심사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주에서 연구활동을 하시는 동문들도 이 상에 기대가 큼니다. 이 점을 심사과정에서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1971년 군의관 군복무를 끝내고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정부시책으로 1년간 근무한 무의촌이었던 곳을 근래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여주군 강천리 간매리입니다. 당시 이곳은 주민들이 굶주리고 전기도 수도도 없었습니다. 연탄불에 주사기를 소독하여 진료하고 겨울에는 개천가에서 얼음을 깨고 간난이의 기저귀를 빨았던 아주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40년여년이 지난 지금은 주민들이 잘 포장된 도로를 자가용으로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변화에 저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성장

부학 실습실에도 잠시 들렀습니다. 혹시 아직도 있는가 해서 시신들의 위령비를 찾았으나 찾지를 못했고 똑똑하게 보이는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명을 상징하는 시계탑이 있는 병실방문은 못 했지만 세 분원을 합하여 총 4,500 병상(본원이 2,500)이 되는 한국 제일의 병원시스템입니다. 오병희 병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번 중동진출은 서울대학병원의 위상이 높아지는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미주동문 여러분, 수십 년간 동창회비를 꾸준히 내신 동문들과 특히 후원금까지 보내주시는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진정한 우리 동창회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앞으로 준비 하는데 시간이 5개월밖에 안 남은 6월초 미주학술대회와 동창회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호텔 Reservation을 마친 분들도 계시지만 6월 2일~4일 학술대회와 Pre Convention Golf, Post convention Washington Tour에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아직 운전이 가능하고 활동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에 서로 연락하여서 평소 보시고 싶은 분들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현 준비위원들은 가장 경제적이고 가치 있는 모임이 되게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기간에 동기들끼리도 모임 수 있게 되십니다. 또 좋은 호텔을 저렴하게 구했습니다. 이 행사에 그저 참여만 하시면 일석이조의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신 회비를 아껴가며 계획한 소중한 행사입니다. Scientific Session에는 물론 Non-Scientific Session에도 모든 동문들의 연세를 고려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토픽으로 연사를 준비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모든 동문들의 취미생활에도 유익한 다양한 내용입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동창회는 GP(졸업 20년 이내)들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이 GP는 우리 동창회의 미래입니다.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동창회를 앞으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도록 일깨워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출하신 한민우 차기회장님의 사임이 확정되었습니다. 후임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시고 인내심이 조금만 있는 동문이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와 효율적인 동창회 사무실이 있어서 옛날에 비해서 쉬운 점이 많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후보를 서면으로 추천하여 주시면 해당 위원회와 대의원회 등 필수적인 절차를 거쳐 공식이 채워질 것입니다.

올미년이 가고 병신년의 새벽에 만동이 났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눈꽃이 천지에 가득히 피는 계절입니다. 2016년에는 여러분들께서 소망하시던 좋은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따뜻한 겨울에 감사하면서,



2016년 새해 - 김명원(68)동문

으로 국민들이 잘 살고 선진국에서도 이루기 힘든 국민의료보험제도는 물론이고 의학의 연구 질병의 진단과 치료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미주동문들은 비록 외국에 살고 있지만 이런 기적같은 고국의 변화에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흐뭇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께서 흘리신 땀과 굳은 의지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새로운 비전과 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미주 동문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교와 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같이 노력하고 동참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룸에서

### 2015 Annual Ball 인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주 의대 총동창회 서윤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서울대학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많은 동창분들이 이렇게 2015년의 송년의 밤을 함께 하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이 우리들의 이민사회에서 동문들간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미 깊은 계기가 되시기 희망합니다.

이 모임이 있도록 협력하신 워싱턴지역 동창회 이사회 여러분들과 의과대학 동창회 임원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하여 워싱턴 지역 서울대학교 장경태 동창 회장님께서 탁월한 행정 능력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1200명의 회원이 있는 의과대학 북미주 총동창회를 대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동문님들께서는 세계 방방곡곡에서 진리를 탐구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며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모임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시고 많은 덕담을 나누시면서 즐기시고 또 창조하시기 희망합니다. 다사다나했던 올미년을 보내면서 준비된 음식을 드시고 음악과 여흥을 즐기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6일 The Westin Tysons Corner, VA

# 2015-16 제1차 대의원회 초록



일 시: 2015년 12월 6일 동부 오후 3시 / 서부 12시  
장 소: Westin Hotel 타이슨스 코너, 버지니아

### 참석자(동부):

김창욱(61) 이재승(61) 김 철(68) 서윤석(68) 신용계(68) 주광국(68) 김병오(69) 조병선(71) 조세진(71) 박인영(75) 한민우(75) 남명호(81) 신원석(88)

### 참석자(서부):

김흥서(69) 김성환(71) 김일영(71) 이원택(71) 고용규(73) 전경배(75) 김동훈(77)

### Proxy:

김웅식(55) 노용면(55) 이만택(58) 최종진(59) 전희근(60) 이희경(61) 정정수(62) 김태웅(63) 김택수(63) 한기현(63) 권정덕(64) 최준희(64) 허선행(64) 홍선경(64) 김진수(66) 이명희(66) 최순채(66) 이건일(68) 김창남(69) 임용규(69) 이성춘(70) 강창홍(71) 오동환(71) 김원정(75) 박종희(75) 최광휘(79) 이선희(81) 심인보(83) 오무연(89)

- 성원 점검후 서윤석 회장의 개회선언 후, 참석하신 모든 임원, 이사, 대의원 및 초청인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 지난 대의원회 초록에 대하여 수정없이 제청과 승인이 있었음.
- 참석한 동문들의 소개가 있던 후 임원 변동으로 새로 맡은 분은 다음과 같이 이사회의 제청과 승인이 있었음.
- 한승신(76), 신규호(68): Scientific committee Co-chair.
- 박인영(75): Convention Associate Chair.
- 이선희(81): Scholarship Committee Assistant Chair.
- 뉴욕지부회장 한민우(75): 차기 회장직 사의

### Committee 보고:

- Scholarship Committee(오무연 89) 서면보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보고가 있었음, 2015 Spring 김태웅 장학금에 유다애,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장학금에는 김지훈, 김현수, 연희라, 우경아, 이재현을 선정, 6월 27일 Executive

meeting에서 승인되었음을 보고함, 9월 9일 SC meeting을 열어 2015 Fall 김태웅 장학금에 최지영(OH)과 최평은(MD),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장학금에는 심성열(OH), 박보민(MD), 박성우(MD), 송지민(NY), 한본양(HI/NJ)을 선정했음.

- Scholarship Fund Management Committee(백승석 fund manager) 보고가 있었음: 2015년 11월 24일 current value: \$257,480 2015년 4월 \$25,000, 8월 \$10,000 장학금 지급함.

현재의 잔고로는 매년 \$20,000 장학금 용도로 인출하는 그 이상을 인출을 한다면 같은 이자율을 보장할 수 없고, 기금은 급감하여 몇 년 내에 고갈이 될 것을 상기 시켰음.

- 재무보고(주광국 68): 7월 1일 이후의 회계보고와 예산보고를 하였으며 제청과 동의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

Financial Statement 아직 준비가 완료되지 않아서 다음 3월 이사회에서 보고될 예정임. Finance Committee Report by Dr. Choi, Soon Chae

- Green project Committee(남명호 81): GP report가 있었음. 월 1회 GP 모임을 하기로 하였음. GP member에 대한 convention 경비는 일인당 \$700까지 보조하기로 함.

Green Project Member에 대한 정의는 50세 이하로 졸업 후 20년 이내로 하기로 하였고 Honorary GP에 포함되는 것은 희망자에 한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이사회에서 동의를 거쳐 제청, 승인되었음을 보고함 .

- Research & Fellowship Committee (조세진 71): 합춘학술상에 대한 설명함. 북미주동창회에서 추천해오던 합춘학술상이 금년부터 폐지되었기에 차후 북미주동창회장의 추천을 통한 공로상 신설을 추진하기로 함.

- Publication Committee(이원택 71): 서면보고 - 영문출판에 관한 논의와 개인 정보 보호와 게재 거부에 대한 규칙 논의.

- By Law Committee (노용면 55): 보고 없음.

- Scientific Committee (한승신 76): 서면보고 - 한국에서 오는 감사 5-8명 예상되며 감사당 25~30분의 강연시간을 배당함, 12월 말까지 연사확정, 1월말까지 초록 완료, 3월 20일까지 프로그램 출판준비 완료.

CME Program은 Upstate Medical School, New York의 신규호(68)동문이 담당하며 \$300/100 참석자의 비용이 소요되며 인터넷을 통한 CME 크레딧은 받을 수 없음.

- Silver Committee (김철 68): 워싱턴 관광 일정 보고함. (June 4 - 5, 2016) 스미소니언 박물관, 세난도 드라이브, 루레이 동굴, 토마스 제퍼슨 생가 방문.

Convention Committee (조병선 71): Non CME Program 서면보고 - 시니어에 유익한 다채로운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하여 1월말까지 초록을 완료할 예정임.

- 감사패 증정 - Annual Ball에서 조세진, 임낙중, 김태웅, 문대욱, 김성환, 이성근 동문께 감사패를 증정하기로 함.

- 2015년 서울의대북미주동창회 Annual Ball은 지역서울대동창회와 공동으로 12월 6일(일) 오후 5시-10시에 Westin Tyson's Corner Hotel에서 열릴 예정임.

- 서윤석 (68)회장께서 참석한 모든 이사 및 대의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Any old business와 Any new business에 대한 논의가 더이상 없었음.

- 폐회선언을 끝으로 제1차 대의원회를 마침.

Prepared by 총무 신원석(88)

사진: 대의원회의를 마친후 연례만찬에 참석한 동문들과 함께.

# 2015 ANNUAL BALL REPORT

12월 6일 the Westin Tysons Corner에서 서울의대 총동창회와 워싱턴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와 합동으로 송년회가 있었다.

약 150명의 인원이 참석하였고 의대동문들이 60 퍼센트였다. 날씨가 푸근하여 행사에 도움이 되었고 임낙중(의대 59), 백순(법대), 이영목(공대), 서윤석(의대 68) 동문이 저서를 기증하였다.

장학생 수여식에서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장학생에 Maryland 대학의 박성우 학생이, 김태웅 장학생에 Naval Academy의 최평은 여자생도가 아들

란타에서 온 부모(최재수 목사부부)와 함께 참석하였다.

총무 신원석(88)동문이 1부 사회를, 박종철(99)과 송정민(09) 동문이 3부 사회를 맡아서 수고하였다. 이들은 모두 지와 예가 넘쳐 흐르는 전문가를 능가하는 실력으로 참석한 모든 동문들의 찬사를 받았다. 사진 참조

3부 사회를 맡아본 손정민 (09), 박종철(99)과 장세권(01)



59년 동기: 이종국, 임낙중, 한성업, 한달수, 김용덕, 김진택, 김수곤



68년 동기: 김철, 김진홍, 신용계, 주광국, 김주평, 박정식, 서윤석



2015년 12월 6일 Annual Ball. 서울대학교 워싱턴 동창들과 함께

# 동문동정 및 지부소식

## 김해암(58) 동문 미주동창회에 1만불 기증

지난 50년간 뉴욕 코넬의과대학 정신과에서 많은 후학을 지도하고 있는 김해암(Hae Ahm Kim, MD)동문이 우리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에 미화 1만불을 기증하였다. 이번 6월 초 버지니아에서의 Convention과 젊은 후배 동문 Green Project (1996년 이후 졸업생)들의 동창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명시하였다.

오늘 본인과의 통화에서 이 기증과는 관계 없이 그의 의견으로는 우리 모두가 긴 안목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새로 미국으로 오는 한국의 후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범국민적인 계획도 다른 선진국 사람들처럼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동창회의 임원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말을 전했다. - 서윤석

**강창욱(61) 동문 수필 등단** - 메릴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강창욱 동문이 지난 12월에 발표된 <월간문학> 신인상에 '아름다운 낙엽'이란 수필로 등단하였다.

말기 암 환자의 죽음을 인간애로 승화시킨 그의 글은 반세기 이상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몸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우리말로 간절하게 표현한 점이 두드러져 보인다. 아무쪼록 '은고이지신'을 살려 '노약장'하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장병호(62) 동문 별세** - 뉴욕주 롱아일랜드 킹스포드에 거주하시던 장병호 동문께서 지난해 12월 10일경에 작고하셨다는 소식을 아드님이신 Victor Chung이 전해 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건일(68) 동문** - 이견일 동문의 아내 김영희(미대 69년 졸업)의 그림이 Cincinnati Art Museum Asian Gallery G138에 전시 되었습니다. 제목: Gourd in moonlight

**최진훈(70) 동문** - 뉴욕주 Ardsley에 거주 하는 최진훈 동문은 내과외사는 part time으로 음악인으로 full time 활약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5일에는 헨델 메시아를 지휘 하였고, 2016년 3월 28일에는 이스터 콘서트를 지휘할 예정이라고 한다.

## 61년도(15회) 동기회 소식

한국과 미국의 동기회 간부/대표들이 2016년 모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하반기에 약 7-11일간의 알래스카 크루즈를 하기로 의견이 일치 되었으며 지금 간부/대표들이 마지막 결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으며,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항 준비를 할 것입니다. - 강창욱

## 68년 동기회 소식

지난 1월 9일 토요일 6시에 홍광신, 신흥식, 이규달, 최철, 송창호, 이대용, 이견일 동문 부부 총 14명 참석한 가운데 홍광신 동문의 집들이 겸해서 정례 저녁모임을 가졌습니다. - 이견일

## 워싱턴, 버지니아 지부 소식

저희 지부에서는 지난 12월 6일 연례만찬이 Tysons Corner에서 있어 따로 연말 파티는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1월 13일 Tysons Corner에 있는 우래옥에서 급년 북미주동창회의 연례학술대회와 컨벤션을 위한 임원진의 준비모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인 워싱턴 DC는 볼거리도 많습니다. Smithsonian Museum, Air & Space Museum, Holocaust Memorial Museum, Tidal Basin 주위로 립킨, 토마스 제퍼슨, 루즈벨트 Memorial, 전쟁박물관 [한국전, 세계2차대전, 월남전] 등. 그리고 Pre-Convention의 Golf는 Lansdowne Resort에서 열릴 예정으로 6월 1~2일 이틀 동안 우수한 4.5 star 골프장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Tour로는 6/4 Washington DC, Half day Tour, 6/5 Luray Cavern(미동부 최대관광과 Thomas Jefferson's Monticello, all day, tour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동기 동문을 만날겸 관광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김진수 워싱턴지부 회장

## 중부 뉴욕 지부 소식: 송구영신 모임

저희 지부에서는 지난 12월 5일 시라큐스에 있는 한인 식당 서울-도쿄에서 점심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서로 새해에는 건강 하시기를 빌고 萬事亨通을 원하는 덕담을 나눴습니다. 참석하신 동창님들은 서상철(56), 유강(64), 이범석(65), 민발식(66), 경우현(67), 임용규(69) 동문 부부들과 Mrs. 오재향(73 오인환) 모두 13분이 같이 했습니다. 회원 수는 줄고 있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온 온 정으로 화목한 지부를 유지하며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년에 3-4번 모임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 임용규

## 남가주 지부 소식: 신년하례회 성황리에 마쳐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1월 23일(토) L.A.의 Oxford Palace Hotel에서 동문과 부인 120여명이 참석하여 새해 인사와 친교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주에서 남가주로 이주하신 동문 4분을 소개하며 오랜만의 만남

# 신간 소개

## 한수용(61)의 수상록 “마음의 고향”

지난해 4월호 시계탐에 소개한 거작 '오페라 작곡가들의 생애와 작품' 출간의 여진이 가기도 전에 한 동문은 노익장의 여력으로 이번에는 자신의 인생회고담을 흥미진진한 필치로 펴내었다. 저자는 오랜 세월 본업인 의업을 떠나서 여러 가지 인생 분야에 관심과 탐구를 추구하며 틈틈이 기록한 수상 들(특히 오페라에 관련된)을 모아 총 31장, 320쪽의 책자로 발간 되었다. (Alexander Printing & Graphics inc, 2015년 8월 15일 자).



중 2년의 어린 나이에 두 형님을 따라 떠나서 다시 돌아가지 못한 고향을 그리워하며 함경남도 성천강 유역의 역사와 지리적 고찰을 소상한 서술로 책 머리를 연다. 이어서 4장까지는 엄동설한 혹독한 추위와 북괴 중공군 추적이 시달리며 도보로 남진하여 흥남 철수로 초만원 1ST에 편승하여 배고프고 춥고 불결한 야간/주간 항해로 거제도에 정착하여 거제중 2학년에 편입되고 이어서 동래 고등을 거쳐 서울의대 졸업까지의 이야기가 당시의 전환, 시대 상황과 함께 소상히 기술된다. 흥남 철수는 한국전쟁사에서 전대미문의 기적적인 희비극이 엇갈린 대사건으로 보도되고 기록되었지만 막상 이를 겪었던 당사자들의 수기가 많지 않은 것은, 지극히 고통스럽고 비통한 경험을 되새기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저자는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쓰는 데도 많은 문헌과 전쟁사를 섭렵한 자취가 역력하고 자신이 겪은 고난의 이야기도 그리 고통스럽지 않은 여유로운 필치가 돋보인다.

후속하는 여러 장들은 의대 졸업 후 보스턴으로 와서 수련 받으며 미국 문화와 음악 특히 오페라에 심취하고 탐구하며, 수련 후 필라델피아에 정착하여 의업에 종사하며 여가로 부부가 오페라 감상에 몰두하며 뉴욕 메트로 오페라 정규공연을 수십 년간 관람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여, 간 학회와 연관하여 한국, 유럽을 포함한 세계여행담, 미국 내 한국인 간담/간담 역학조사와 진료 여행, 저명한 작곡가와 오페라 가수 이야기가 주가 되고, 참 스승 이인수 선생님, 한국인의 건강 관리, 우주 이야기와 이방인으로 끝 매김 하는 데 하나같이 다 흥미진진하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저자의 타고난 인간애와 예술적 기호에서 발현되는 열정의 소산일 것이라 보인다. - 이희경(61) 기

## 유필문(72)동문 - '그때 그사람' '지금 어디에'

사진 위, 그때 그사람 - 1880년경 시카고: 남자 왼쪽부터 - 김풍영(72) 오동석(72) 권영조(72) 유필문(72) 위장호(73) 한경수(73).



사진 아래, 지금 어디에 - 2016년 1월 LA: 남자 왼쪽부터 - 유필문(72) 권영조(72) 이원택(71) 오동석(72)



미국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유필문 동문은 현재 서울에서 방사선과는 심심풀이로 하고 Coffee Medicine을 전공하여 이번 Columbia의 커피 학회에 참석후 로스앤젤레스를 경유 중 한장 찰까.

\*앞으로 <그때 그사람> - <지금 어디에>를 시계탐 '동문동정' 난에 연재할 계획이니 예전에 찍은 사진과 비슷한 현재 사진이 있으면 장소, 일시, 인명을 명시해서 동창회 사무실로 e-mail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 통해 동문 상호간의 정을 더욱 돈독히 할수 있었으며 Radio Seoul의 이창록씨의 사회와 흥겨운 음악으로 남아있는 젊음을 발산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동문회를 위해 물심 양면으로 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신 동문과 사모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 김태웅 선생님과 동문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김태웅 장학생 최지영씨, 신년하례회 참석하신 동문들 - 김동훈







# 영원한 언어

강창욱(61, 메릴랜드)

오는 월요일은 메모리얼데이, 미국의 현충일이다. 오늘은 모처럼 찾아온 연휴일이 시작되는 날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을 기리는 국가적 추모의 날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보내야 할 날이다. 그런데 마음은 느슨해지고 몸이 천근같이 무겁다. 아니다. 연휴일 이니까 다들 하듯이 신나게 즐겨야 하지 않겠나 하고 가벼운 나들이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절친한 후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오랜만에 만나 점심식사를 하자는 것이다.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이십전십이런가 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늘 만나는 후난(湖南)식 중국음식점에서 만나 낯익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이 친구와 나는 남도 보고 뽕도 따겠다는 듯 환한 미소를 서로 나누며 이야기를 나눈다. 그 친구는 내가 전에 언급했던 어느 글 얘기를 하며 그와 같은 글을 보았다며 로베르토 암프로(Roberto Ampro)의 작품 "네루다 사건(A Case of Neruda)"에서 노벨상 수상자인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가 "시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옮겨준다"라고 하며 시는 특별한 언어로서 타계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상상한다는 말이었다.

예수와 석가는 우주의 진실을 법(法)과 이법(Logos)이라고 하며 이것을 인간에게 말(言語)로 가르치기 위해 화신(化身)하였다는 두 종교의 신비스런 공통점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신약성경에서 로고스(Logos)는 예수를 뜻한다. 그 말과 함께 시(詩)는 우주의 신비와 진실을 함축하고 있다고 한 말을 기억한다. 여러 불경과 성경의 대부분 특히 하나님의 말씀(先知者의 豫言)과 인간의 기도(詩

篇)는 모두 시(詩)로 되어있다. 불교의 삼신불(三神佛) 중 법신불(法身佛)과 화신불(化身佛)이란 우주본래의 마음 즉 법(法)이 부처라는 구체적 인간의 형태로 나타난 것을 말한다. 우주의 진실이 곧 부처님이라는 말이겠다.

신약성경(요한복음:1)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시니라" 라고 기록 되어 있다. 우주의 이법(理法, Logos)이 예수 그리스도로 화신(incarnation) 하셨다는 말이다.

나는 오래전에 칠레에서 온 한 친구로부터 네루다에 관한 얘기를 처음 들었다. 그리고 우편매달부(II Postino)라는 영화에서 네루다가 신비한 시인으로 묘사되어 그는 이 세상에 더욱 많이 알려졌다. 네루다에 대한 생각이 아직 뇌리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 오늘 신문을 펼쳤다. "기독교와 불교가 만난다"는 강연회 기사가 먼저 보였다. 페이지를 넘기니 오피니언에는 "참새로 오신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한인성공회의 한 신부가 이 지역에서 널리 알려졌고 작년에 입적하신 한 스님을 기억하면서 석탄일에 맞추어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보인다. 스님이 참새를 보내어 기독교 신부에게 안부를 하러 온 것으로 시작하여 불교가 배타적이지 아니라는 이야기가 그 내용이었다. 저승에서 새를 보내어 안부를 전한다는 것 참으로 시적(詩的)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점점 오늘 일어난 일들이 기이하다는 상념에 빠지기 시작했다.

문호 춘원 이광수의 단편 '육장기'에서 우리인생과 새들의 삶을 연결한 비유를 하고 법화경(法華經)을 바탕으로 해서 사바세계의 고통과 인과(因果)와 윤회(輪回) 이야기를 하면서도

구약성경 시편 100장으로 그 책의 끝을 맺었다. 춘원의 종교관은 절충주의(Eclecticism)였다고 본다.

시인 황동규도 꽃에서 그런 누암스를 본 것 같다. 그의 시 꽃의 고요에서 '일고지는 바람 따라 청매 꽃잎이/ 눈처럼 내리다 말다 했다. / 바람이 바뀌면 / 꽃들이 드러나 생각에 잠겨 있는 / 흙담으로 쓸리기도 했다. / 꽃지는 소리가 왜 이리 고요하지? / 꽃잎을 어찌로 맞고 있던 한 불타의 말에 예수가 답한다. / 고요도 소리의 집합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는가? ...' 라는 절을 보면 마치 불타와 예수의 선문답(禪問答)같다.

다시 네루다의 시 고다마 그리스도(Gautama Christ)가 떠오른다. 벌써 그의 시의 제목을 봐서 이야기의 전개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의 이름 특히 그 대표자 / 그를 예수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부른다고 / 그것은 성스러운 책에도 쓰여 있고 누군가가 말로도 했다. / 그 이름은 쓰일 대로 쓰였고 이제는 낡아서 / 인간의 삶이라는 강변에 / 빈 조개껍질처럼 버려져 있다. / 그러나 우리는 그 성스러운 이름 그러나 그 지친 이름, / 사랑과 공포의 대양에서 살아남은 / 그 상처받은 꽃잎을 만지면/아직도 그 무엇인가 남아있다 / 마치 한모금의 물과 같이 /아직도 어렵קות한 광선에 남은 무지개의 발자국과 같이...' (필자

번역) 그런데 그 제목은 불타와 예수가 이명동인(異名同人)으로 표현된 것이다.

황동규 시인처럼 석가와 예수를 때어버리지 말고 대화하는 곳으로 잠시 걸어가 보는 것도 시인다운 공상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또 네루다가 말한 것 같이 천국과 교신을 할 수 있는 것도 시인의 특혜가 아닌가 하는 공상을 한다. 이러한 상념이 오늘 나를 시인이 더 부럽게 한다. 이런 날에는 오르페우스(Orpheus)가 지하(地下)에서나 피안(彼岸)에서 시인을 부러워하는 나를 가련히 여기며 내게 신비스러운 신호, 그 영원한 언어로 시상이라는 것을 보내는 단꿈에 잠기고 싶은 날이다. 그래서 꿈에서나마 내가 시로서 하늘과 통화를 하고 예수를 만나게 될지 누가 아나?

저자소개: 올해로 금혼식을 맞이한다는 강창욱 동문은 정신과 전문의로 은퇴하여 메릴랜드에서 거주하고 있다. 정형외과의인 아들, Graphic Designer인 큰딸, 그리고 막내딸은 내과의사로 University of Nebraska 조교수이며 작가로서 지금 Control 이라는 소설과 후편으로 Catalyst가 Penguin에서 출판되었다 한다.

(자택) 410-486-6865 (휴대) 410-371-4049 cwkang@comcast.net cwkangmd@hotmail.com

## 지상동화



김해암(58, 대뉴욕)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Green Project와 2016년 학술대회를 위해 1만불을 쾌척하신 김해암 동문을 연결해 보았다.

작년 6월 학술대회에서 잠깐 나누었던 차분한 음성을 다시 들어보니 전혀 80세라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신이 강건한 분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아직도 뉴욕의 코넬대학 부속병원 정신과 병동에 있는 Asian unit에 advisor로 자원 봉사하고 계시고 주요 관심사인 cross-cultural psychiatry에 대한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취미로는 등산, 요가, 고전 독서 등이며 앞으로 집필도 구상중이라 한다. 또 우리 동문들이 의업으로 번 돈을 잘 투자해서 봉사 활동을 열심히 벌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한다. 특히 동창회 차원에서 'peer group'을 형성해서 미 주류사회에 진출하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신다며 다음번 시계탑에 당신의 포부 일부를 피력해 보시겠다고 하면서 충충히 전화를 끊었다.

## 시계탑 편집위원회 회의 초록

일시: 2016년 1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서부 오전 10시)  
장소: Fort Lee 풍림  
참석: 노용면 이희경 허선행 서윤석 서인석 이선희 사무장 Jamie Kim 이원택(speaker phone 으로)

1)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영문 원고에 대해서,

이원택 편집장은 기고자의 의도를 존중해서 기고자가 영문게재를 원할 때는 필수 있으면 영문으로 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편집위원 대다수가 <시계탑>이 '필요한' 것만 영문으로 실는 것을 찬성하였고 시와 같은 영문 동시 번역도 그 문학성을 따져서 번역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것만 '예외적' 으로 같이 실기로 하였으며 영문원고는 편집위원선에서 교정이 힘들면 주위에 있는 영어권 친지 혹은 자제들에게 의뢰해서라도 '제대로 된' 영문을 실기로 했음.

2) <시계탑>에 나오는 'privacy'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동창들끼리 서로 숨길 일도 없고 또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좋은 일이나 그리 좋지 않은 일이나 그냥 실명을 써서 만천하에 공개되는 일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현대인의 추세에 따라 좀 계륵직한 부분은 익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본인의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함.

3) '농담골목' 우수작품 시상에 대해서

현 편집장이 동문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느라 만든 농담골목 투고자들에 대한 장원 및 가작 상금 (각 100불과 50불씩)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상금이 편집장이 동창회 찬조금으로 내면 그것을 동창회 수표로 바꾸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음.

**정정합니다** 지난호 9면의 임종식(57)선배님의 이메일 jhim@verizon.net을 jrhim@verizon.net 으로 바로 잡습니다.

5면의 정진묵(57) 선배님의 한시이야기에서 개전오염이 추성이 읊습니다. 근가 아니라 근입니다. 즉 뜻은 '뜰앞에 오동나무는 벌써 가을소리를 내네,' 전과 같습니다.



25회 71년 졸업 45주년 기념여행이 백두산으로, 2016년 8월 24일~28일에 가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유럽, 일본, 동남아 등 여러 곳이 후보지로 물망에 올랐지만 마음먹어야만 갈 수 있고, 국내와 미주 동기들이 모두 관심이 있고 뜻깊은 여행지를 생각하면서 백두산이 결정되었습니다. 백두산을 오르는 길은 네 곳인데 그 중 가장 먼저 개발된 북파코스라 천지 사진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서파코스를 4박 5일로 다녀오는 일정입니다. 북파코스는 차량으로 정상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1 일: 인천공항을 출발 연길에 도착. 한국사람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두만강 강변공원을 즐기고, 연길 시내관광, 진달래광장 관광을 합니다.

2 일: 백두산 서파코스로 이동합니다. 정상에 올라 천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화산의 용암으로 생성된 금강대협곡으로 이동 합니다.

3 일: 백두산 북파코스로 이동합니다. 차량으로 천문봉까지 올라 가서 관광 하실 수 있습니다. 백두산 용암에서 끊어 나온 온천수가 흘러내려 오는 모습을 봅니다. 온천지대, 장백폭포, 녹연담, 소천지등을 관광합니다.

4 일: 백두산에서 내려와 연변자치구에 있는 이도백화, 용정, 연길 등으로 이동하면서, 27세의 청년의 나이로 일제 감옥에서 숨을 거둔 민족 시인 윤동주 시인이 다니던 대성중학교 (현 용정 제일중학교)를 둘러 서 시가 새겨져 있는 윤동주 시비와 기념전시관을 봅니다. 해랑강, 일송정을 지나며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명동촌으로 향해 복원된 윤동주 시인의 생가를 방문한 후에 연길로 이동합니다.

5 일: 연길 공항으로 이동, 인천으로 귀국합니다.

미주 동기회장 김창구 ckk0602@gmail.com



# 친구 찾이 1000리 길

이 덕 승(60, 남가주)

2015년 10월 23일, 아내와 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1,000리 길에 올랐다.

이순환 부부가 살고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주 주 Contra Costa County에 속해 있는 Walnut Creek City로, San Francisco Bay 동쪽에 위치한 Oakland에서 동쪽으로 16마일 떨어져 있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고장이다. 우리가 3개월 전에 이사를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Studio City, LA County)에서 Walnut Creek까지의 거리는 336마일이다. 이를 km로 환산해 보니 536km가 되고, 우리나라의 리(里)로 환산해 보니 1,340리(1리=0.4km)가 되는 거리다.

San Diego에 살고 있었을 때는 자동차로 8시간 걸리는 거리를 5시간 반만에 갈 수 있었기에 큰맘 먹고 집을 나섰다. 물론 드라이브는 나보다 6살 연하인 내 아내의 몫이다. Freeway 5 North로 차가 질주하는 동안 나는 한가롭게 passenger seat에 앉아, 길 좌·우로 펼쳐진 포도밭과 자로젠 듯 정렬하게 줄지어 서 있는 굴감나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새 시야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밭과 정원이 눈앞에 전개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난 반세기에 걸쳐 동고동락하며 지내왔던 친구 이순환을 떠올리니 즐거웠던 추억들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간다.

우리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강당에서 처음 만났다. 미국 의사 자격시험(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s)에 응시하기 위해서였다. 합격의 기쁨을 안고 우리는 미국에 있는 병원들을 물색하면서 가족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 1년 동안 매일 만나다시피 했다. 1969년 6월, 이순환 가족은 Detroit, Michigan에, 그리고 우리 가족은 Warren, Ohio에 안착했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도 On call이 아닌 주말에는 디트로이트에서 혹은 Warren에서 만나 인턴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곤 했다. 정신과 레지던트를 마친 친구는 Ypsilanti, Michigan에서, 그리고 마취과 레지던트를 끝낸 나는 St. Louis, Missouri에서 practice를 시작하였는데 집안의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서로 왕래했던 다정한 친구 사이다.

의료직에서 은퇴한 나는 샌디에고에 터를 잡았고, 같은 해에 은퇴한 친구는 3년 뒤인 2003년에 라스베가스로 이주해 왔다. 샌디에고에서 라스베가스까지는 자동차로 5시간 정도의 거

리여서 우리는 1년에 2-3번 정도 만나곤 했다. 특히 바둑의 묘미를 알고 있는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바둑판을 마주했다. 바둑의 급수가 같고 보니 한두 판 이기면 상대방을 하수라 약 올리기가 일수였고, 그날의 승자는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24일로 기억된다. 미세스 리의 울음 섞인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석근이 아빠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 갔어요.”

“저런,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오늘이 사흘째인데 아직 의식이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리로 갈까요?”

“아니, 오실 필요 없어요. 의식불명인데요.”

“여보, 어쩔든 지금 가 봅시다.”

아내의 조언에 나는 지체 없이 라스베가스를 향해 핸들을 잡았다. 친구는 우리가 올 것을 예측이라도 한 듯 우리의 출발과 동시에 의식이 돌아와 있었다. 우리가 병실 안에 들어섰을 때 친구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여보, 이 선생님 오셨어요.” 남편의 어깨를 살짝 흔들면서 우리의 방문을 알리니 “어, 덕승이 왔어?” 두 눈을 번쩍 뜨면서 우리를 반겨주었다. 나는 친구가 내민 오른손을 두 손으로 가볍게 감싸 쥐면서 말했다. “그래, 나야. 이제 위험한 고비는 넘겼으니 빨리 회복해서 바둑 한 판 뒤야지.” Bleeding Stomach Ulcer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위 조직검사서에서 Cancer Cell이 검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나는 한동안 정신 나간 사람모양 안절부절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순환이가 앞에 걸리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하나 현실은 현실이다. 미세스 리가 남편의 향후 치료에 관해 내 의견을 물어왔을 때 라스베가스보다 더 큰 도시에 있는 병원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소견을 말해 주었다. 아들과 딸이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여러 해 전에 이미 장만한 집도 있고 아들과 친지들의 의견에 따라 Stanford University Medical Center에서 위 절제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그로부터 1년 5개월 만에 우리는 친구 집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친구

의 집은 실버타운으로 one unit에 네체의 단층 단독주택이 사면으로 붙어 있는 3 베드룸의 아담한 가옥이다. 양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의 방문을 환영하는 친구 부부의 얼굴에서 반갑고 기쁜 미소가 넘쳐흐르고 있었다. 친구의 몸 상태는 내가 상상하고 있었던 것과는 180도 달랐다. 친구의 집에 들어서기 전까지 나의 생각은 뼈적 마른 몸매에 머리는 엉성하게 빠져있고 허리는 구부정 휘어서 걸음조차 힘겨운 중증환자의 모습이었었는데, 체중도 적당히 빠졌고 머리를 뒤덮은 흰머리카락 술도 수술 전과 비슷해 보였으며 걸을 때 지팡이 신세를 좀 지기는 했지만 골은 허리에 정상인의 걸음걸이와 별다른바 없었다. “야! 너 정말 다행이다. 이걸 기적이야!” 열려했던 내 마음을 달래기라도 하듯 안도감의 탄성이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저녁 식탁에는 미세스 리의 정성이 담긴 설렁탕이 우리의 미각을 자극했다. 미세스 리의 요청으로 우리는 겸허하게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3박 4일 동안 친구 집에 머무르면서 친구와 나는 붉은 색으로 물들인 아름다운 단풍잎들을 벗 삼아 집 주변을 산책하였고, 중·일식 뷔페식당을 찾아 자신에게 맞는 요리를 마음껏 골라 먹으면서 지나온 추억담에 시간가는 줄 몰랐다. “난 아들, 딸의 삶을 감시할 목적으로 이곳에 집을 샀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들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다.” 하는 친구의 말에 우리 모두 박장대소했다.

“위암 절제 수술 후 처음 받은 chemotherapy가 심한 부작용을 일으켜 폐 속으로 물이 들어가(Pulmonary Edema) ICU에 입원하였는데 담당 의사로부터 ‘가망이 없어 보인다.’ 라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콩 볶듯 쿵! 쿵! 거리는 심장 뛰는 소리가 귓전을 울리면서 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던 당시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말끝을 맺는 미세스 리의 두 눈에는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만 같은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래 맞아, 난 수술을 받고 나서 3개월 이상 살지 못할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덩으로 살고 있으니 아무런 여한도 없어, 그저 감사할 뿐이야.” 죽을 고비를 두 번이나 넘기면서 자신에게 닥친 고통과 고난을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낸 친구의 강한 의지가 놀랍고 장해 보였다. 지금은 간에 전이된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3주에 한 번씩 Chemotherapy를 받고 있는데 효력이 있어 암세포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기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 우리의 만남은 L.A.다!” 문 밖을 나서는데 우리의

# 체력단련과 그 효과

박형순(60, 남가주)



좋은 체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테니스와 달리기 운동에 전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과거 48년 동안 테니스는 주로 단식만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한시간 이상을 치고있습니다.

매년 뉴욕시에서 개최되는 U.S. Open에 참석하여 테니스에 대한 열정을 쏟아 왔습니다.

테니스를 안치는 날에는 보통 평균 4 마일 정도 뛴니다. 정기적으로 뛰는 덕분에 매년 Washington D.C.에서 열리는 Army Ten Mile에 참가하여 나이에 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2년 Virginia State Senior Olympic에 참가하여 400미터와 800미터에서 좋은 기록을 내는 덕분에 National Senior Olympic에 초대되어 2013년 Cleveland, Ohio에서 개최되는 National competition에 참가하는 영광을 가졌고 작년 9월에 개최된 Northern Virginia Senior Olympic에 참가하여 60미터, 200미터 그리고 400미터에 도전하여 모두 일등으로 석권하는 공적을 따냈습니다.

뛰는 운동은 대뇌 동맥이 확장되어서 대뇌의 기능을 촉진시켜 치매가 되는 과정을 느리게 하는 것을 우리 나이에 간과할 수 없다. 운동은 할 수 있는한 계속 할겁니다.

저자소개: 정신과 전문의로 은퇴하여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음.

만남을 환영이라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것인지 바로 뒷산에서 내려왔다는 칠면조 아홉 마리가 바로 옆집 잔디밭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롭게 보였다.

미세스 리의 붉어지는 눈시울을 뒤로 한 채 아내와 나는 차에 몸을 실었다.

요즘 세상은 내가 자랄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그중 하나는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와 살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 졌다는 것이다. 예전의 한국사람들은 이런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겨온 것이 사실이나 이런 생각은 최근에는 많이 수그러진 상태라 하겠다. 이런 가정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콩쥐팥쥐 이야기나 독일의 백설공주 이야기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하여 전 유럽에 퍼진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계모 계부에 대한 표현은 부정적인 것이 많았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영화이다. 세계대전, 중동전쟁, 이란의 미국인 인질사건 후에는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가 나왔고 요즘은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서인지 한국에 관한 것을 영화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최근에 Daddy's Home 이라는 영화가 나왔다.

한 남자가 두 아이들을 데려온 여인

과 결혼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이 영화는 시작한다.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아이들을 돌

보고, 학교, 과외 활동에 데려가고 음식을 차려주기도 하고 잠잘 때 베드타임 스토리도 들려준다. 그래도 아이들의 반응은 그리 밝지는 않았다. 그들이 그린 그림 가운데는 자기들과 엄마는 한쪽에 나란히 그려놓고 한쪽 구석에 계부를 그려놓았는데 얼굴쪽에 칼도 그려 놓았다. 숨어있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었다. 이 남자는 섭섭은 하였겠지만 그래도 자기 아내의 아이들이니 싫은 표정 없이 일상 해주던 것을 해주며 살아갔다.

그러다 갑자기 아이들의 친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다 아이들은 오

랜만에 보았을 텐데도 대 반색을 하며 맞이했다. 친부는 계부에 비해 근육이 두 배 정도의

건장한 체격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옛날 엄마와 살 때의 사진들도 들려오는 아이들의 마음

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리고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이 친부를 확실히 더 따르는 것을 보고 계부는 실망하였고 집을 떠나 따로 살기로 하였다. 이제 학교나 과외활동에 데려다 주는 것은 친부의 몫이 되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런 일을 안해서인지 학교에서 데려오는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계부의 성실했던 행동들이 이제야 인정받게 되었다.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로

원하여져서 돌아왔고 그의 위치를 다시 찾게 되었다. 애당초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집을 나간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다 친부도 좋아하는 여인이 생겨 재혼하게 되었는데 이 여인도 한 아이를 데려왔다. 그 여인의 전 남편은 더욱 체격이 건장한 사람이었다. 친부도 아이에게는 계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아이도 자기의 친아버지가 왔을 때 크게 환영하며 기뻐하였다.

이 영화는 계부도 친부도 제자리를 찾아서 자리 잡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배우들의 연기도 일품이고 대사도 적절하고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데 약간의 정장에서 벗어나야 하는 아쉬움을 생각하게 하는 코메디 영화다. 변화된 환경에 대한 차선책이라도 찾아가는 각 사람들의 상황을 잘 표현하였다.

어차피 변경할 수가 없다면 그것에 적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 영화 감상

# Daddy's Home

나 두 섭(73, 남가주)

한 남자가 두 아이들을 데려온 여인

# 두 죽음

김병석(59, 대뉴욕)



며칠 전에 한 고양이가 두 집 좁은 벽 사이에서 죽었다. 크막한 몸동으로 온 동네를 돌아다니던 검은 고양이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집 강아지와 기 겨루기를 하기도 했었다. 두 이웃은 시체 치우는 것을 꺼려 서로 그쪽 집에서 죽었으니 그 집에서 치워야 한다고 욕심각심 했다. 이것을 지켜 보고있던 제 삼의 이웃 사람은 양쪽집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니 양쪽 모두 책임이다. 한 집은 왼쪽 다리를 치우고 다른 한집은 바른 쪽 팔을 치워야겠다고 농담을 했다. 결국 시청 청소차가 시체를 치워갔다.

사람도 연고자 없이 집 밖에서 횡사를 하면 이 비슷하리라. 자신의 죽을 준비와 죽은 후의 장례 준비도 해 놓을 필요가 있음도 새삼 느끼게 했다.

마침 이 무렵 불란서 빠리에서 테러리스트들의 시민 대량학살 사건이 있었다.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량학살이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쓰러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죽음을 보며 삶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연상이 펼쳐졌다. 한국전쟁 때 본 수많은 시체들, 역사상 몇 차례 세계전쟁, 911 테러와 여러 나라에 계속되는 테러가 계속 악화 일로를 가고 있는 살상, 미국내 대량 총기 살인극... 다른 한편 일년에 수만명씩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죽이기 위해 죽을까.

타살과 자살은 남이나 자신의 육체 기능을 파괴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끊어 버리는 행위로 이 결과가 죽음이다. 모든 생명은 늙으면 자연적으로 죽게 마련이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자연적 과정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파괴 할까?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죽음이다. 이 죽음은 두가지를 중시시키는데 하나는 육체기능 다른 하나는 우리의 정신, 영혼이다.

법은 눈에 보이는 육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보이지않는 영혼은 문제삼지 않는다. 고의로 남을 살생하면 사회적

으로도 용납되지 않을 뿐더러 법적으로도 일급 살인죄가 적용되며 그 벌은 각양각색이나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해서 살인 할 수도 있고 일반인들도 대단히 흥분한다. 남의 육체를 죽이지 않더라도 고의로 상해를 입혀도 그것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여기에 하나 문제가 있다. 이 사회에는 남의 육체에는 피해를 주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남의 정신 영혼에 상처를 입혀서 다른 이의 실제 삶을 파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피해자에게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신체에 입은 상처보다도 오히려 크고 견디기 힘들며, 그 사람의 체면, 자존심, 긍지, 명예 등 그 사회적 활동에 치명적 피해를 입힌다. 물론 이것이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이것을 감수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실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자기 이익이나 체면을 세우고 자기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남의 영혼을 해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소위 정치인들만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예를 접한다.

한 좋은 예로 헛소문을 고의적으로 퍼뜨리는 것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 배우자를 내 쫓고 배우자가 바람이 나서 자기를 버렸다고 헛소문을 퍼뜨린다.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혼한 사람들은 이혼 했다는 사실조차도 수치스럽게 느껴 그 사실을 숨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우자를 내쫓았을 경우에는 자기의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워 미리 거짓 소문을 급히 세상 방방곡곡에 활발하게 퍼뜨리는 행동을 한다.

이것은 남의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경우와 달리 형사법에 저촉되지 않아 체포되지 않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고소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정력과 비용 때문에 이런 일로 민사소송하는 일은 거의 볼 수 없다.

각자의 생각과 인격과 처지에 따라 이런 헛소문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소문 퍼뜨리는 사람을 책망하고 자제 시키며 또 어떤 사람은 이 소문 퍼뜨리는 사람을 동조해서 같이 소문을 퍼뜨린다.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지루함에서 벗어날 기회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을 들으면 객관성을 잃고 신이 나며 특히 사교적 모임에서 공통화제로 재미있게 부풀려 낸다. 이런 소문에 쉽게 동조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심리적 문제나 욕구를 충족 시키려고 소문을 무의식적으로 이용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하자면 자기도 모르게 공범자가 되며 그 죄값은 범인과 똑같이 취급된다.

정상적인 인격의 소유자들은 이렇게 헛소문을 고의적으로 퍼뜨리는 사람은 결국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을 피할 수 없고 그것이 고통스러워 그 짐을 덜고 싶다면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세상사람들에게도 공개 사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겠다.

그러나 처음 동기가 자기의 이익과 체면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생할 수는 없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기껏 해본다는것이 성직자에게 고백하는 정도이다. 아마도 종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졌는지도 모른다. 성직자들은 이런 고백을 받으면 피해자한테 가서 직접 사과하라고 충고 해줘야 마땅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고해성사나 하고 경을 의우면 죄가 씻어진다고 한다.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덜고 이 사람의 사회적 명성이나 지위를 회복하는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정신분석에서는 반작용 형성 (reaction formation)이라는 무의식적 기전을 말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용납될 수 없는 마음속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즉 죄의식 같은 것을 숨기기 위해 그 감정과 반대되는 행동을 겉으로 과장해서 나타낸다는 현상을 말한다. 많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그 반작용 기전으로 마치 천사처럼 행동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열정적으로 종교에 귀의한다. 물론 이것은 자기 기만이다. 많은 분별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 이사람을 천사같은 사람이라고 좋아하고 교직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교구를 위해서 이용한다.

# “Hello, ‘동행’이란 말”



이홍빈 (63, 대뉴욕)

누가,  
나와 알맞게 함께  
내 보폭맞춰/같이 가는거면  
...

둘 여도,  
떼려도  
한 향방/날새처럼 고기스며처럼

지나고 나서,  
(참) 좋더라  
고맙더라 생각 혹 들거면

어떨까,  
같이 산 세상  
지금쯤/돌아볼 세월

둘 여도,  
떼여도  
한 향방

남았는 앞은/얼마,  
어름할 길 없다손  
지금서/돌아보는 세월을 말 하자

누가 나와함께,  
같이 살아으며  
(참)고맙다- (님)서로 좋았다- 생각일까/지금쯤

둘 여도,  
떼져  
여럿 여도

사십삼억 칠천 몇백만년/‘한집’이라고,  
'오천집'에 하나-인연이/ '동행'길 이라-데  
천하에 함께 사뭇서로 중하고 귀할밖에/같이 이천  
지에 서로 여간 고맙고 의지-밖에 사랑일밖에.

정신과 정신분석 전문의로서 늘 느껴온것은 사람들이 육체에 치우쳐 신경을 쓰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즉 정신을 등한히 한다는 사실이다. 이때문에 세상은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불가분한것이기에 때문에 이 둘에 똑 같이 마음을 써야하며 이 세상을 바로잡고 바로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신적인 면에 마음을 더 써야 할 것으로 믿는다. 눈에 보이는 인간사회의 모든 현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작용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 2016년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사진 공모전

사진은 추억을 담은 그릇이자 예술입니다. 많은 동문들께서 '사진학'에 정진하는 마당에 북미주동창회에서는 '걸작'들을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진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 주제:

- 1) Artistic photos: 한 명당 10편 이내 출품이 가능함. 가능한한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첨부 요망함.
- 2) Memorable photos: Category 및 작품수의 제한이 없음. 유년시절, 학창시절, 전체동창회, 지역동창회, 동기회 등의 행사와 관련된 사진들을 환영함. 년도, 장소 및 관련된 설명 첨부 요망함.

### 응모 요강:

- \* 마감일: 2016년 3월 31일
- \* Digital 사진: 파일 용량 10MB 이하의 JPG file; size는 제한 없음.
- \* Analog 사진: 300 dpi 이상의 scanned JPG file scanner가 없으시면 원본을 본부에 보내주셔도 됨.
- \* 접수: union13728@gmail.com (by e-mail 시계탑 편집실) SNUCMAA, P.O. Box 631 Port Washington, NY 10050 (by mail)

### 수상작 선정:

- \* 2016년 4월 한 달간 접수된 작품은 회장이 임명하는 3-5명의 심사위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1, 2, 3등 및 가작을 선정, 소정의 상금을 2016년 6월 학술대회장에서 수여할 예정입니다.

### 기타 유의사항:

- \* 출품된 모든 작품들은 접수 후 1-2일내 접수되었음을 이메일로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확인바람. 계획중인 동창회 웹사이트에 설치되면 'Photo Contest' 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 응모한 작품들을 시계탑에도 사용될 수 있음.
- \* 가능하면 모든 작품들을 수록한 사진첩 혹은 DVD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회장 서윤석(68)  
시계탑 편집장 이원택(71)

# 소 잃고도

허 선 행(64, 대뉴욕)



요즈음 갈수록 알쏭달쏭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고 궁금한 것도 늘어가고 있어서 내가 좀 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특히 총이나 무기에 대해서는 논의한이지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기나 총으로 시작한 작전이나 일은 결국 그 무기나 총 때문에 큰 코를 다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이 내가 배우고 또 보아온 것이다.”

요새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그 나라와 국민을 위해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한다고는 하지만 여기저기 터지는 총기 사고와 범죄(미국 내)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의 무분별 살인 행위가 아차 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말하자면 미국 내 자체의 총기 사건으로도 어린이나 선량한 시민이 다치거나 죽어가는 비극이 많았고 뉴욕시 쌍둥이 건물 지하실에 폭탄 세례로 이를 저지른 아랍계 종교 지도자의

재판이 끝날 무렵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 되고 나라의 수치였던 9/11 사건, 그래서 약에 바친 미국 국민과 정부, 결국 미 군부는 이라크 공격과 알카에다에 폭탄세례를 해왔지만 빈 라덴 사살한 것 빼놓고는 큰 성과 없이 10 여년이 지나는 동안 ISIS 라는 이슬람 종교를 앞세운 더 강력하고 잔인한 무장단체가 날뛰며 중동을 포함한 세계를 공포에 빠트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미국에 와서 살면서 아직도 의아한 것은 많은 미국인들이 집에 총이 없다는 불안해서 못산다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족도 산다는 것이니 말이다. 콜럼버스가 총을 가지고 미대륙에 상륙했을까? 그래서 American Indian 과 싸우면서 총 없이는 살 길이 없다는 고정 관념이 생긴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아직도 어느편 손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남의 영토를 침범하는 것은 항상 옳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총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총을 갖고 침범과 약탈을 일삼았던 일본인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한국(남한)의 각 가정에도 총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정치, 경제, 사업(장사)에 맹문인 내가 생각해도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방 대국들이 지금도 딱 붙여지게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친다” 는 것이다. 헌법이 어쩔고, 종교,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인권의 존중을 따지다 보니까 안보에 구멍 뚫려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게 된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외양간도 돈이 있어야 고치는데, 사실 뭐니뭐니해도, 우리가 사는데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을 것이다. 세계를 지배하는데도 돈 많은 나라가 앞장서서 큰 소리 치게 돼 있고, 미국 대통령 선거도 선거 유세자금의 승패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의존하는 데는 사업인이 있게 마련이다.

전쟁중 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업중에 제일 고약한 아니면 무서운 사업은 정치인을 앞세운 무기상이라고 본다. 돈을 버는 장사는 못 할 것이 없었지만 이 테러리스트들이 어떻게 무기 및 군수품을 조달하는 지가 나의 첫째이며 최종의 의문이다.

우선 적군의 돈을 끊어놓고 무기상이나 무기를 그들에게 팔아온 어느 정부나 국가의 목을 졸라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미국이나 우방의 힘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적군에게 무기를 팔아 아군을 치게 하는 우방의 무기상은 과연 없을까 생각해 본다. (추가: 테러리스트가 사용하는 무기나 총탄이 어느 나라 제품이란 뉴스를 들어 본 적이 내 기억에 없어 또한 궁금하다.)

# 선인장 꽃

김택수(63, 라스베가스)

메마른 사막에 피는  
너를 보고 아픔을 배우고  
불별 더위에 피는  
너를 보고 참음을 배우며  
아름다움이 극치이면서도  
뽀내지 않는 너를 보고  
겸손함을 배운다만  
하루만에 조용히 지고마는  
내 운명이 애처러워  
한숨 짓노라



사진: 김택수

내리막길처럼 전화번호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며 순간순간 이어진다. 때로는 오르고 내리다 다시 올라오며 삶의 길처럼 꼬불꼬불하기만 하다. 9 다음의 0은 삶을 모두 비워내고 나면 또 다른 새로움으로 다시 채울 수 있다는 뜻일 듯도 싶다.

핸드폰의 ‘#’ 부호를 유럽에서는 뒤죽박죽의 의미인 ‘해시(Hash)’ 라고 부른다. 인생이 워낙 뒤죽박죽 섞인 것이기에 삶을 이어가는 휴대폰에도 그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핸드폰이 있는 한 번호들은 존재할 것이고, 그것들은 순간마다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것이다.

세상을 들고 다닌다. 자동차 안에서, 식탁 위에서도 사각형의 세상은 살아 숨 쉬고 있다. 혹시 세상이 깨지고 부서져 사라질까 봐 하루 종일 핸드폰을 조심스레 운반한다. 언제나 습관처럼 세상을 품어서인가, 핸드폰을 잇고 길을 나섰다가도 다시 돌아와 그것을 챙겨간다. 세상과 하나인 내가, 그것이 사라지면 발붙일 곳이 없어 존재조차 무의미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다. 나의 모두를 핸드폰에 의지했다가 그것이 사라지는 그 어느 날, 갑자기 치매 걸린 사람모양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무능한 바보로 전락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이다.

# 핸드폰



김영애(Mrs. 김성환 71, 남가주)

핸드폰을 들여다본다. 마치 작은 수첩 같다. 아는 사람들의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가끔 가는 서점 이름도 있다. 바쁜 하루를 기억해 주고 필요할 때마다 챙겨주니, 비록 얼굴은 늙고 낡았지만 그저 있어주어서 고마운 비망록이다.

일요일 아침, 한 주의 피로로 늦잠을 즐기기는커녕 서둘러 전화할 준비를 한다. 그 전날 콘서트홀에서 실종된 핸드폰 때문이다. 전화기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즉시 잃어버렸을 만한 곳을 찾아 떠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문이 잠겼다는 바람에 다음 날 아침 전화로 미뤘다.

한동안 회비에락으로 사람을 나누던 연인이 갑자기 증발했다고나 할까. 가슴속의 그 무엇처럼 휴대폰 없이는 한 순간도 안정을 찾기가 힘들었다. 그것은 기억들을 차곡차곡 저장해 놓은 나만의 일기장일 뿐더러, 삶의 급한 고비마다 문제를 해결해준 해결사이기 때문이다.

혹 핸드폰 없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 낡고 험어 볼품은 없지만 나의 전부를 실은 그것을 누군가 가져갈까 봐 가슴을 졸인다. 남편은 그런 구닥다리 핸드폰을 누가 가져가겠느냐며 반문을 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외모가 번듯하지 못한 것이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른다.

실물을 했다는 생각까지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편안할까, 소유에 대한 집착은 가슴 한구석에서 불씨를 뱅기더니 또 하나의 번뇌에 불을 붙인다. 순간, 텅 빈 무소유의 자유로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실감한다.

전날 앉았던 좌석 번호를 알려주며 주변에 혹시 핸드폰이 떨어졌나 살살이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한다. 하지만 내가 앉았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대답이 이어진다. 잃어버린 어린 아이를 찾아 나서듯 서둘러 남편과 그곳으로 나섰다.

못난 자식처럼, 굵고 때가 묻고 결점이 많기에 오히려 더 정이 가는 핸드폰이다. 손끝에서 떨어지지 않고 동고동락하던 그것은 불평 한 번 없이 내 곁을 맴돌았다. 힘들고 지칠 때 의지하던 피붙이같이, 무료할 때면 뒤적거리며 위로를 받았다. 달달한 음악과 익살스런 영상으로 깜짝 쇼를 해대며 순간을 기쁘게 만드는 마술사 같았다.

전날의 화려했던 음악회와는 달리 관중석엔 무거운 침묵만이 가라앉아 있었다. 경비원은 플래시 불을 비춰가며 내가 앉았던 좌석을 살살이 뒤진다. 하지만 무엇도 걸치지 않은 빈 벽 같은 그곳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 보지만 녀석은 기운이 모두 쇠했는지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는다. 불러줄 때마다 화사한 꽃으로 피어났던 핸드폰. 김춘수 시인의 시구처럼, 불러 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열 개의 번호로 이름을 불러 주자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어쩌면 핸드폰은 이름을 부르면 다가가 누군가의 꽃으로 피어나고픈 기다림의 꽃인지도 모른다. 삭막한 삶의 가슴속에서 피어나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으로 승화되고 싶은 의미의 꽃일 것도 같다.

어찌 생각하면 핸드폰은 나비일 듯도 싶다. 그리움과 기다림을 싣고 그속의 카카오 톡 나비는 멀거나 가깝거나 사뿐히 비상한다. 나뭇가리는 날개로 태평양을 건너 정든 고향에다 반가운 이야기들을 전한다. 나비의 가냘픈 날개에는 정다운 눈빛과 가슴의 향기까지 곱게 배어 있다.

핸드폰의 작고 얇은 네모진 상자에는 온 세상이 들어있다. 세상 소식들과 지구별의 세밀한 지도가 들어있고, 영혼의 이야기들이 보관되어 있다. 상자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면 조그만 창에 온 세상이 뜬다. 마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서 영혼이 담긴 손가락이 혼을 불어넣자 세상이 열리듯, 손가락은 핸드폰에 영혼을 불어넣는가 보다. 인체의 축소판이라 볼 수 있는 손가락과 손가락의 만남. 정녕 삶은 영혼이 닿아야만 열리나 보다.

드디어 세상에 하나뿐인 나의 핸드폰을 남편이 찾아냈다. 전혀 기적이 없던 핸드폰이 내가 앉았던 바로 앞

좌석에서 발견된 것이다. 내가 남편과의 인연이 대단한 만큼, 낯익고 때 묻은 핸드폰도 남편과 인연이 만만치 않은가 보다.

생각해 보면 핸드폰은 인연을 맺어주는 메신저인 것 같다. 불가의 인연경에는 오백 겁의 인연을 걸어야 현세에서 웃기를 한 번 스치게 되고, 삼천 겁의 인연이어야 하룻밤을 함께 지내게 된다고 한다. 한집에서 살려면 칠천 겁의 인연이 있어야 하고, 부부의 연을 맺으려면 팔천 겁의 인연을 지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와 핸드폰 그 녀석은 칠천 겁이나 되는 인연으로 나와 한집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더 놀라운 것은, 핸드폰은 넓고 깊은 삶의 바다 가운데에서 오직 한 사람을 찾아내 몇 천 겁의 인연을 수시로 맺어준다는 사실이다.

핸드폰이 나를 부른다. 달리는 기차 소리에 정감어린 음률이 가미된 소리다. 기차바퀴처럼 도는 삶에 달달한 멜로디를 불어, 굴러가는 삶의 달콤함을 표현한 듯싶다. 재미난 것은, 사람마다 제각기 얼굴이 다르듯 핸드폰 소리는 저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제어미만 알아들을 수 있는 분신의 울음소리 같다. 나의 분신 핸드폰은 지금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은어로 어미인 나를 부르는 것이다.

핸드폰을 열자 세상은 0부터 9까지의 숫자로 연결된다. 삶의 오르막길과

# 시계탑 원고모집 안내

## 모집하는 원고 내용

동기 및 동문동정, 지부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조사, 기행문, 서평, 그림, 사진, 서예, 서간문, 독후감, 영화평, 시, 농담골목 유모어,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다만 정치나 종교적인 내용은 편집회의에서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 보내시는 방법 및 보내실 곳

성명과 졸업년도, 거주지, 간단한 작가 소개 및 본인 사진과 글에 관계되는 사진, 그림, 도표 등을 아래하 한글 바탕체 10호 행간 160% 또는 Word를 사용한 Text로 e-Mail로 보내주시고 모든 산문은 A-4 용지 2매 이내, 논문이나 기행문은 4매 이내로 보내주시면 합니다.

SNUCMAA of NA (Sigetop)  
P.O. 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Fax: (516) 365-5501  
e-Mail: snucmaa@yahoo.com



紙上法醫



종신 징역에서 26년 만에 석방

노용면(55, 대뉴욕)

워싱턴 디시(Washington D.C.)에 있는 젊은 여자 변호사가 내게 부탁을 해 왔다. 자기 사촌 오빠인 다그라스(Douglas)가 26년 동안 형무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더러 그를 도와 달라는 것이었다. 자기는 그 오빠가 무죄 인줄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이제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으니 그를 도와야겠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녀에게 사건에 대한 사실을 물었더니, 오빠가 26년전에 뉴욕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노동자 생활을 했고 밤에는 여자 복장을 하고(transvestite) 매춘부들과 같이 일하다가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다음은 그 사건을 조사한 경찰의 기록이다.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서 사진 재료를 팔고 있던 젊은이가 뉴욕 주 북쪽에 있는 코닥(Kodak) 회사에 가

고 하고, 약속한 전날 그곳에 도착했다. 호텔에다 짐을 내려놓고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했다. 식당에서 나오니 웬 여자가 문가에서 있었는데, 돈 81을 줄 수 있는가고 물었다. 그가 돈을 주니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 자동차에 같이 가자고 했다. 차에 가니, 그 여자가 뒷 좌석에 자기와 함께 앉으라고 했고, 그런 후 그의 성기를 만져 주었다. 그가 발기를 하니, 그 차를 운전하던 여자가 차를 근처에 있는 호숫가 앞에 몰고 갔다. 그런 후 운전하던 여자가 그와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가 끝난 후 그가 돈을 지불하고 오줌을 누기 위해 호숫가에 갔다. 그때 그와 같이 뒷좌석에 있던 자가 망치를 들고 나와 그를 쳐서 사망케 했다. 그 뒷 좌석에 있던 자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 복장을 한

남자였고, 그가 바로 내게 부탁을 해 온 변호사의 사촌 오빠였다. 경찰 보고서에 의하면 그 현장에는 다른 매춘부도 있었는데, 그 매춘부가 위에 적은 사실을 목격했다고 했다. 다그라스는 재판을 받고 종신 징역을 언도 받았다.

변호사가 그 현장을 목격했다는 증인 매춘부를 찾았으나, 그녀는 오래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다고 했다. 다그라스와 같이 있던 매춘부에 의하면, 그녀는 그 피해자와 다그라스가 자동차에서 내린 직후 그 장소를 곧 떠났다고 했다.

변호사가 그 캘리포니아에 간 매춘부와 그때 함께 있던 여자를 찾아냈는데, 그녀에 의하면 그들은 그때 그 현장에 있던 것이 아니라 판 곳에서 사고를 저질렀고, 그곳에서 도망쳐 문제의 장소에 갔으며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경찰이 그들에게 면제로 이사를 가라 했고, 안가면 그들이 판에서 저지른 죄값을 치르게 된다고 했다.

내가 변호사더러 경찰이 그때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찾아오라고 했다. 사건이 생긴지 26년이 되던 그때에도

경찰이 많은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 시체가 발견된 장소에는 뚜렷한 자동차 바퀴 자국이 있었다. 차가 급히 멈추었다가 다시 간 것이 분명했다(skid mark). 시체가 입었던 옷들을 찍은 사진을 보니 그의 흰 셔츠 왼쪽 가슴쪽에 넓고 검은 줄이 있었다. 그것이 자동차 타이어가 지나간 자국으로 보였다. 이러한 나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나의 친구인 법의학계 물리학자(forensic physicist)에게 그 사진을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그가 그 자국을 섬세히 검사한 후 그것이 자동차 타이어에서 찍힌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내가 재판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설명하고 문제의 피해자는 차에 치어 사망했다고 증언을 했다(hit-and-run). 다그라스는 곧 무죄로 석방되었다.

References:

1. Yong-Myun Rho: Industrial Diseases and Injuries. Medicolegal Implication. New York State Journal of Medicine 78:2239-2241, 1978
2. Yong-Myun Rho: Importance of Examination of the Clothed Victim. American Journal of Forensic Medicine and Pathology 6:19-20, 1985.

얼마 전 시계탑 편집인 이원택 님으로부터 Laguna Woods에 대한 글을 청탁받고 망설이다, 은퇴인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라 생각되어 소개를 할까 합니다. Laguna Woods는 이미 은퇴인이 살기 좋다는 소문이 미국을 비롯 한국에까지 났습니다.

“천당 바로 아래 Laguna당” “천당 바로 밑 999당” 또는 “백수가 과로로 코피가 날 지경이다.” 등 바쁘게 즐겁게 건강하게 사는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Laguna Woods는 51년전 1964년 9월 10일 첫 10가구가 입주했고, 당시 창설자 Ross W Cort가 Orange County 남부 Saddle Back Valley의 땅, 3,500 acre 의 Moulton Ranch를 구입 1963년부터 기본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남가주대학교의 연구지원을 받으며 55세 이상 은퇴인의 실버타운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초기의 이름 'Leisure World'에서 현재의 이름은 Laguna Woods Village 라는 이름이 채택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City Hall과 Mayor는 1999년부터 시작되었고, 현재는 Female Mayor가 City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Laguna Woods는 Orange County의 32 번째 시티로 태평양 바닷가 특히 관광지인 Laguna Beach까지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Saddle Back 마운틴과 북쪽 멀리에 Balding 마운틴의 아름다운 정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고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 도시는 Irvine, Lake Forest, Laguna Hills, Aliso Viejo, Laguna Beach 등이 있습니다.

Village 전체가 벽으로 둘러 쌓여있는 Gated City로 주민의 안전과 경호를 위한 보안담당부서가 24시간 경비 및 경비원이 출입통제를 하는 14개의 게이트가 있습니다.

위락 시설로는 18홀 골프코스과 9홀 골프코스가 있으며, 클럽하우스 7개 수영장 5개 Fitness Center 2개(이곳에는 Personal Trainer가 있음) Tennis Court 10개, Paddle Tennis Court 4개 Grass Bowling Court, Suffleboard Court 가 있습니다. 그리고 Wood Work, Ceramic Photo-Work, Painting 등을 위한 시설들이 갖추어 있고, Gardening에 취미가 있는 분들을 위한 Garden Center, 승마를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Horse Farm도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근처에 은행, 식당, 교회, 쇼핑몰, 병원과 다른 메디칼 시설에 갈 수 있는 Free Transportation 이 갖추어 있으며 Free Cable TV

Service도 모든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House는 1,2개의 베드룸 또는 3 베드룸 콘도로부터 Independent single house 까지 거의 100여 가지 다른 Floor Plan 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Laguna WoodsVillage.com(yahoo, Google, u-tube, Wikipedia)에서 볼 수 있습니다.

Laguna Woods는 어떤 곳인가?



권영조(63, 남가주)

한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취미 운동은 타이치, 수영, 합창, 댄스, 골프, 탁구, 그림, 서예 등이 있으며 그외에 컴퓨터 클래스가 계속되며, 한인 등산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있습니다.

특히 '라구나 우즈 글사랑 모임'이 2014년 이곳 창설 50주년을 기념하는 50인 수필집을 발간 했으며 금년에도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책이 발간 되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전문분야를 공부한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한인들간의 침묵을 다지는 200-300명의 참여하는 친목 파티가 열리며 골프 동아리, 특히 서울대학교 동문 파티가 연례적으로 계속되고있습니다.

기후는 일년 내내 비교적 고르고 따뜻하며 (필자가 살던 Michigan과 비교하면) 일년 평균 온도가 72F 라고 합니다. 한 여름에는 100F 가까이 된 적이 한두번 있었으며 지난 2년동안 한겨울에도 집 밖에서 얼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곳 Golfer 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Today is another perfect day." 로 만족하고 있으며 골프코스 1과 2에서 볼 수 있는 멀리 떨어져있는 Balding 산 정상에 쌓여 있는 흰눈을 볼 때 마다 골프 스코어와 관계 없이 자연의 오묘함과 아름다움에 감동되어 푸근함이 가슴을 적셔온곤 합니다.

골프를 마친후 등성이에 제법 높게 자리잡은 클럽하우스의 19홀 라운지에서 내려다 보이는 27홀 골프코스과 특히 초겨울 저녁 Saddle Back 마운틴 아래의 산과 도시 사이로 잘 어울려진 불빛들이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맥주를 시켜 놓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노라면 나는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 매일 골프 리조트에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내의 말에 의하면 "여기 사는 분들은 아마 전생에서 잘 알고 지냈던 분들 같다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곳 사시는 사람들이 산책하거나 골프 카트를 타고 지나다 보면 서로

마주치는데 눈길이 마주 칠때 마다 흔히 인사 말을 하거나 손을 흔들고 지나칩니다. 나는 이때 마다 서로에게 "우리가 남인가?" 하는 표시로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이웃으로의 친밀감을 나누려고 항상 푸근하고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40여년의 미국 생활에서 가끔 나는 스쳐가는 이방이라는 의식과 고독감이 이곳 Laguna Woods에 온 후로는 점점 희미해져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20분 정도의 거리 안에 있는 한국식점, 한국식당 등 또 다른 시설을 이용할 때나 한국인 골퍼를 대할 때 마다 언뜻 한국에서 은퇴한 것 같으면서도 몇 십년 몸에 젖어온 미국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항상 나를 편안하게 해 줍니다.

아내와 자주 동의하는 것은 "이곳 LWV로 오기로 한 것은 근래 수년만에 가장 잘한 결정중에 하나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더이상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어디로 갈 것인가로 번민할 필요 없이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충실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는 마지막 보금자리를 찾게 된 것을 우리 부부에게 내려준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2095 acre(4 Square mile)에 12,736 가구에 18,000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지난 몇 년 사이에 한인들의 인구가 1천명으로 늘어 났고 앞으로 계속 한인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Retired Physician과 Dentist가 100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은퇴 대학 교수들이

나, Engineer 또는 다른 전문직 분야에서 일하셨던 분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곳의 실상이 한국에도 알려져서 이곳으로 오고자 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동문들의 근황을 잠시 살펴보면, 제일 수장이신 고영철(42년 입학) 선배님으로부터 막내인 본인까지 2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1960년 입학동기가 다섯분으로 단연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년에 4번 있는 전체 서울대학동창회 모임(의대 동문이 현재 회장임)과 연례 의대동문 골프대회과 다른 여러 모임을 통해 서로간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수 이상의 동문들이 지난 3-4년 사이에 입주하셨고 계속 몇몇 동문들이 이곳 LWA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몇 해 전 어느 조사기관에 의하면 LWV는 미국에서 두번째로 살기 좋은 Retirement Town (아직도 소수인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음)이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제일 살기 좋은 곳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존재할까?

마지막으로 몇 가지 Negative Side 를 언급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첫번째: 일부 Gated Community에서는 앰블런스가 지나가는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으나 Gate 9, 10, 11, 14에 위치한 Community에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Monthly Association Fee (including water bill, Maintenance of yard, Outside structure of house as well as whole town environment)가 콘도나 하우스의 크기에 관계없이 같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이곳의 하우스나 콘도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정해진 금액 이상의 연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Longterm Renting은 연소득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 이곳 생활에 익숙해 지다 보니 바쁜 스케줄 때문에 LWV 밖에 사는 친우나 친척들과 연락하거나 만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LWV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고 익숙해 지다보니 리타이어먼트 타운이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하며 영혼이 편안해 질 수 있는 마을에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 Green Project Corner:

Our effort on the grass-roots Green Project movement continues in this issue of Sigetop with our Part II of the GP White Paper 2015. The Alumni Survey Korean and English version is distributed as a Sigetop newspaper insert with an envelope.

The survey in English will also be available in Survey Monkey in the months of February and March on the alumni website <http://www.snucmaa.us/>. The entire Green Project White Paper (both Parts I and II) as well as the downloadable survey forms will be made available on the alumni website. The data will be gathered, analyzed and presented at the SNUCMAA-NA annual convention GP forum.

The Green Project Committee will disseminate this information using the alumni email list, our Facebook group page <https://www.facebook.com/groups/snucmaa/and> Kakao Talk, in addition to Sigetop.

Last but not least, we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the GP members as well as the senior membership for their unwavering support, and encourage all alums to take time to read the White Paper and respond to the survey. Also, please show your support by sending the membership dues and donations of any amounts to the Green Project. The numbers of due-paying members and the donors are often seen as important (measurable) indicators of success of our movement.

Dr Eun Yong (14) wrote the following comment on Facebook: "Just read the Part I of the Green Project White Paper (in Sigetop Oct 15, 2015). Brilliant piece of writing. I recommend everyone to read it! I was very moved by the paper. I pictured the committee sitting in a table trying to understand the minds of our generation. I appreciate the time and effort that GP committee is putting through this. I agree on most parts of the paper and I think the 'younger generation' should also be part of this process, since it can't be just a one-way communication..." Thanks Dr Eun, and please keep these encouraging responses coming our way!!!!

The Green Project Committee, January 2016

*The following is Part II of the GP white paper 2015, the first part of which was published in the previous (October 15th 2015) issue.*

## The Green Project White Paper 2015 Part II

### 4) Operational Recommendations.

A) To Support self expression, participation and presentation. Newer generations identify themselves with the organizations where they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mselves and be accepted as such. In the past, younger alums were often given simple tasks at the convention since it will be less burdensome for them. Being assigned with scut work is no longer seen as a favor by green alums. They prefer opportunities to express themselves. In this regard, the presentation venues of the convention, such as scientific symposium, forum and poster sessions, are priceless opportunities for GP alums. The 2015 annual convention drew a larger number of green alums than any other recent years. An important element for this success was that there was a separate GP section established within the scientific symposium and GP forum, which had invited about 20 green alums as speakers. It is our strong recommendation that there will be a GP section within the scientific symposium every year and that we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the green alums in organizing the scientific symposium overall.

B) To reconsider modes of interactions with green alums. Ways of interactions based on hierarchical structure would be challenges for green alums. More desirable outcomes will be attained, when our outreach efforts are more of inclusive gestures rather than demanding or instructive communications. Telling them what to do rarely works, while asking them what should be done could motivate them to accomplish objectives on their own. As a way of example, our approaches in encouraging green alums to serve the association could be bettered. It has often been presented to young alums with a mindset, "If you do not serve, who will?". Leveraging the sense of obligation for encouragement is no longer an effective approach for younger generations. They will be more willing and ready to respond, when they see the tasks are those that they can relate to at a personal level.

C) To reconsider socialization functions of green alums' preference.

a) Personalized or small group gatherings. Each generation comes with their preferred ways of socialization. Green alums enjoy socializing in small groups rather than in big functions. Given the stages of their careers, they thirst for information, networking or substantive support, for which big functions of festivity are not prime conduits. We propose that an annual retreat will be held just for green alums, in which they could connect and socialize with each other. In addition, we propose small and personalized functions are included in the regular convention programs specifically for socialization among green alums.

b) Creation of GP specific social functions. There are probably no other functions in the convention that reveal contrasting preferences between senior and green alums than banquets. Over many decades, the black tie banquets have been a major platform of festivity and socialization as well as a major attraction at the convention. Nevertheless, they seem to fail to attract or even interest green alums. The survey after the 2015 convention yielded numerous positive feedbacks from green alums. But, the two banquets were pointed to in surveys over and over again as a function that they could not relate to. In fact, there are many vignettes in which the banquet experiences have turned away green alums from the association for many years. The banquets and/or how they are conducted could serve as a potential hurdle in encouraging the attendees to return to the convention in coming years. Presently, the scientific convention is the only

opportunity for green alums to interact each other in person. Given that the GP is currently in its infancy and thus still in a very unstable stage, it will be vitally important to establish non-scientific programs or socialization functions of the GP's own during the convention. Specifically, we propose that attendance to banquets is made optional for GP alums and that GP specific social functions will be created.

### 5) Policy recommendations. In light of the vital importance and complex nature of GP projects, we propose that the following policy items be considered.

A) The committee of president's special emphasis. Historically, the GP committee has operated directly under the president. We propose to consolidate this by defining the GP committee as one of president's special emphasis.

B) GP budget. Currently, there is no budget specifically established for GP activities. We propose that the GP budget will be established, which will be conducted by the committee under the auspices of the president and executed by the association. The recommended budget items will include the expenses for a) monthly committee meetings, and b) travel support for the annual convention and retreat.

C) Search and Induction of new members. There will be a need for constant search for newly arriving alums in the U.S, on which the GP committee will place a special emphasis.

D) Scientific symposium. As noted above, we propose that a separate section of GP symposium will be included in the annual scientific symposium.

E) Travel fellowship for green alums. GP alums connection to the association will culminate in attending the annual convention and retreat. It will be our strong recommendation that travel and lodging will be generously offered to GP alums, particularly in training. GP alums could be classified to be in three groups. A) Pre-training. These alums arrived in the U.S. recently and are presently search for positions for training. We propose that all green alums in this category will be fully covered for the travel, lodging and registration, whether they are presenters or not. B) In-training. These alums who are currently in training. We propose that all attendees in this category will be fully covered for the travel, lodging and registration, whether they are presenters or not. C) Post-training. These are junior faculty or staff members. Presenters and first-time attendees could be partially reimbursed for travel and lodging.

### 6) Concluding remarks:

It is a challenge for all societies to incorporate newer generations and to hand off values of the previous to the next. Perhaps as a function of collective wisdom of each entity, some succeed and pass the baton to the next, while others fail and perish. Further confounding GP projects is that our green alums are part of the generation that goes through changes at a pace that is unprecedented in modern times. The tenet of this proposal therefore is that our efforts to enhance the GP membership should be reconsidered based on generational characteristics of younger generations. We thus recommend that our mode of operations be reshaped to cater to the characteristics of green alums as described above (4). Without policy establishment or changes, however, there will be no continuity that future GP activities can leverage. An overarching theme in our policy recommendations is to further empower the GP committee by defining them as a committee of president's special interest and endowing a budget that can be governed by the committee (5). These together will equip the committee with the ability to act effectively in response to new challenges and to function abreast of rapidly- and ever- changing characteristics of green alums in our association.

- The Green Project Committee:

Chang-Gyu Hahn (81) Young-Jae Nam (94) Mooyeon Oh-Park (89)  
Myong-Ho Nam (81) Sunhee C Lee (81)

### The Green Project White Paper 2015 Korean Excerpt:

1970년 이후 도미 하는 의대 졸업생들이 현격히 줄어들면서 저희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는 그 잠재가 깊어 우려됩니다. 지난 십수년간 GP(Green Project) 위원회와 동창회를 아끼는 여러 동문들이 GP를 활성화하기 위해 간절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젊은 동문들과 그들의 참여는 점차 줄어들어 왔습니다.

왜 GP 확장을 위한 십 수 년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했는가? 이 GP 백서는 과연 기성의 회원들과 지도층이 젊은 동문들의 문화와 가치 그리고 그들의 취향을 이해하고 우리의 행동양식에 그것을 반영했을까 하는 점에 착안 합니다. 이십일 세기의 젊은 세대는 현금의 기성세대와는 다른 몇 가지의 특징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로, 젊은 세대는 대인관계에서는 군중속에 익명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개인성이 존중되는 교류를 선호합니다. 또한, 단체에서는 일방적으로 따르기 보다는, 직접 참여하고 자신을 표현하기를 기대합니다. 기성세대는 수직관계에 익숙한 반면, 젊은 세대는 수평의 관계를 기리고, 복종을 기대하는 기성의 문화를 지난 세대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서의 요지는 GP를 증진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이런 젊은 세대의 특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안 하건데, GP 위원회가 회장단의 특별 관심사로 설정되고, 별도 예산이 GP 위원회에 주어지고, 어느 정도 자주성이 회장단의 지도아래 허락되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아래에 요약한 항목들이 정책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GP 위원회는 강화되고, 따라서 젊은 세대의 빠른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시기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 GP위원회: GP위원회를 회장단의 특별한 관심사로 설정하기를 제안합니다.
- GP예산: GP위원회를 위해 별도의 예산이 설정되고 회장단의 지도아래 적절히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 GP Scientific symposium: 연례 Scientific symposium의 일부로서, GP symposium이 설정되기를 제안합니다.
- Travel fellowship: GP 동문들 특히 현재 수련 중에 계신 분들은 여행과 숙박을 지원받기를 제안합니다.

# Clerkship at University of Minnesota Medical Center

김현수 (2012)

## 1. 연구 배경

저는 2015년 6월 29일부터 7월 31일 까지 교내 해의의학연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5주간 미네소타 대학교 병원에서 임상실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을 당시 처음에 제가 지원한 분야에는 참여할 수 없었기에 지원 과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2주간 Plastic & reconstructive surgery에서 실습하였으며 마지막 3주 동안 Adult psychiatry에서 실습하게 되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는 1950년대 Minnesota Project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와 오랜 인연을 맺어왔으며, 특히 의학 교육 분야에서는 이 Project를 통해서 서구의 의학 교육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다른 유수 대학만큼 배울 점이 많으리라 생각하여 미네소타 대학교를 실습기관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Plastic & reconstructive surgery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본교 임상특과 수업을 들으면서 성형외과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을 배울 수 있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관심이 생겼으며 피부과를 실습하면서 성형외과의 협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관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형외과이라는 학문은 일반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상실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능적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외과(General surgery)에서는 주로 내장기관(internal organs)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하고 있으나 성형외과에서는 주로 표면적인 해부학적 이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맨 눈으로 확인하며 수술 후 경과 관찰이 쉽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경과 관찰을 통해 wound healing 등에서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고시를 마치고 의사로서 인턴십을 하게 되는데, 인턴 의사로서 응급실에 내원하는 laceration 환자를 대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suturing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성형외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suturing 스킬을 익힌다면 앞으로 의사로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성형외과를 실습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부과 실습을 하면서 성형외과의 협진이 자주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피부과와 연관되어 성형외과에서 어떠한 치료를 해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또한 미국 의료 환경은 국내 수술 인프라 및 의료 보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특별히 궁금해져서 미네소타 대학교 병원 클러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trauma 환자가 많고, 뿐만 아니라 총기 소지가 허용된 주도 있기 때문에 외상환자의 환자 군이 많이 다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미용적 수술 면에서도 한국과는 조금 다른 미의 기준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어 미국에서의 cosmetic surgery 뿐만 아니라 traumatic surgery에서의 환자군 차이 및 치료의 차이를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Psychiatry 분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3학년 임상 실습을 하면서 정신과 질환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병동 담당 레지던트 선생님께서 "In treatment"

라는 미국 드라마 감상을 주제로 내주셔서 보게 되었는데 그 전부터 관심이 있던 psychotherapy, 정신과 상담 치료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정신과 질환에 대해 두려워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일부 심리학과 상담 치료도 높은 가격과 제한된 서비스로 인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에서도 쉽게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정신과 임상 시스템이 어떠한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기 때문에 개개인에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해의의학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미네소타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되는 Adult psychiatry clerkship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는 MMPI라는 정신과 검사 방법을 개발한 학교로 정신과 분야에서 미국 어느 대학교보다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정신과학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데에 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 미국 내에서도 미네소타 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교내 정신건강의학과 실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었지만 Out-patient 기반으로 이뤄지는 정신과 상담은 개 개인의 의료 정보 보호 및 편한 정신과 치료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자 case를 참관하기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아 정신과 치료는 병동 실습을 제외하고는 외래 참관 기회밖에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소아 정신과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신 질환의 많은 psychosis는 어린 나이에 발병을 하게 되며 어린 시절의 ADHD, Autism 등이 후후의 정신 질환 발병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 군을 만나보고 싶어서 Child psychiatry(Out-patient) 외래를 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으나 미네소타 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간의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Adult Psychiatry Clerkship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새로운 질환 군의 환자를 만나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배워보고 싶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였습니다.

## 2. 배운 내용 및 느낀 점

1) Plastic & Reconstructive Surgery  
UMMC East bank에서는 대부분의 수술은 교수님이 주로 집도하시고 1st assistant는 Fellow 선생님들께서 하시고, 마지막으로 2nd assistant로 스크립을 설 기회를 주셔서 수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술 중간 중간에 Fellow doctor 등의 지도 하에 제가 stapling을 하거나 suture

를 하는 등 직접 수술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reconstructive surgery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참관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Flap을 준비하고 어떻게 Reconstruction을 확인하는지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술 시설의 경우에는 특별히 한국과 크게 다를 것은 없었지만 일부 procedure나 시스템적인 면에서 조금 달랐습니다. 특히 환자를 dressing하는 방법과 post-op follow up 등이 조금 달랐는데 특히 breast reconstruction/breast reduction surgery 같은 경우에는 "On-Q" pump를 이용하여 pain control을 하고 수술 당일 discharge하여 집에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에 따라서 환자를 직접 환자가 깨어 회복실로 이동하는 과정까지 지켜보고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서 수술 결과를 설명하는 등 환자 1명을 케어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경우는 수술 일정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은 경우였고, 반대로 수술 일정이 빡빡한 경우에는 점심도 거를 정도로 바쁘게 움직여야 했고 심지어 양방이 열려 필로우 선생님이 한 수술을 미리 준비하는 등의 양방 수술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술방의 경우 수술방에 참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환자들의 의료 기록에 대한 보호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클리닉의 경우에는 한국과는 달리 여러 개인 health insurance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health insurance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고 보장 가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수술이 health insurance에 의해 cover 되는지, 또는 처방 약물이 health insurance에서 cover 가능한지를 의사 또는 간호사가 직접 알아보고 처방하거나 수술을 계획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의사가 충분히 그 환자의 치료 필요성에 대해서 appeal 할 수 있다면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덕분에 BRAC 1/2 gene 만으로도 prophylactic mastectomy 뿐만 아니라 breast reconstruction surgery까지 보장 받을 수 있기도 하여 그러한 면에서는 환자에게 정상적인 해부학 구조를 되찾는데 까지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mastectomy 수술 등의 경우에는 의료비가 만만치 않은 데에 입원 기간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빨리 퇴원시키고자 하는 방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Regions Hospital에서는 마찬가지로 1st assistant로 수술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특히 Regions Hospital에서는 특별한 경우나 어려운 케이스의 경우 Attending doctor가 중요한 부분을 직접 집도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술을 Resident doctor가 집도하고 Attending doctor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언을 해주시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시는 등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2nd가 아닌 1st assistant로서 많은 부분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Same day surgery에서 직접 Mohs surgery가 끝난 넓은 범위의 얼굴 wound에 대해서 목에서 skin을 떼어 skin graft를 시행하는 것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skin의 두께는 충분히 얇게 하되 graft가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graft 뿐만 아니라 코 부분의 wound의 경우에는 주변 skin을 rotation 해서 graft하고 새로 생긴 wound는 primary suture로 닫아버리는 procedure

를 하였는데 처음 해보는 수술이라서 재밌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 환자는 손가락 amputation을 Same day surgery 수술방에서 시행하였는데, 환자의 기능을 생각해서 amputation 위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Regions Hospital에서는 Hand surgery case도 많이 참여할 수 있었는데, 손 수술의 경우에는 기능이 중요하며 여러 해부학적 구조가 복잡하지만 체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손의 flexor, extensor muscle tendon 등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muscle tendon laceration의 경우에는 tendon injury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tendon이 잘린 부분을 최소한으로 남겨야 하는 대신 tendon끼리 연결할 때에는 근육의 수축 등을 견딜 수 있도록 단단하게 고정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주 실습을 통해서 미국 의료 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차이점을 배울 수 있었고 특히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의 필요성을 의사가 직접 환자 입장에서서 의료 보험회사에 의료적 고찰 및 필요성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의무가 좀 더 늘어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환자가 여러 수술 방법 중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고 교육하여 환자 스스로 시간을 갖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을 보면서 환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Regions hospital에서는 미국의 최대 명절인 독립기념일을 지나고 폭죽으로 인한 burn trauma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외에도 교통사고를 통해 많은 환자가 maxillary injury를 당해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 환자는 trauma 뿐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opioids 중독 때문에 계속 통증을 호소하면서 drowsy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면에서 한국에서 opioids 사용과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 레지던트 선생님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미국의 residency program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직접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비만의 정도가 한국보다 심하기 때문에 비만을 위한 수술도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고(Tummy tuck surgery, Abdominoplasty)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비만으로 인한 oversized breast 때문에 도리어 breast reductive surgery가 자주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몸무게에 따른 권유되는 절제되는 breast 질량도 정해져 있어서 Schunur sliding scale에 따라서 수술의 정도를 정하고 수술만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운동을 먼저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미국과 한국의 큰 차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성형외과 실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처음 지원 당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직접 수술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 제게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 2) Adult Psychiatry

이 실습을 통해서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환자의 의사가 더욱 강조됩니다. 약물 처방에 있어서도 의사가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각각의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며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다른 약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다음면에>

